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강화

익산시, 내년부터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집단민원·농촌경관 훼손 방지

익산시가 내년부터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태양광 시설 난립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농촌 경관의 훼손을 줄이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11일 익산시의회의결을 거쳐 30일 공포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준을 종전보다 대폭 강화했다. 개정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은 기존 도로변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2차로 이상(포장폭 6m 이상)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에서 200m로 거리 규정이 강화됐다.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200m내에 입지가 불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 주거지 거리제한은 10호 미만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200m(사업 면적이 5,000㎡이상일 경우 300m)이내에 입지가 불가해졌다.

한편 시에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5년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

우는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지역 사람들이 허가받는 경우가 많아 사업지와 지역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해 경관 부조화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는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시행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 건은 현행 조례를 적용한다. /익산=이재훈기자

2022년도 예산 1조8269억5430만원 확정

군산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제3회 추경 1억3357만원 삭감·16건 안건 의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3회 결산 추경을 통해 2022년도 예산을 1조 8269억 5430만 원으로 확정했다.

시의회는 9일 제21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최종예산 확정 및 16건의 부의안건 중 원안 가결 1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인 1조 7827억 9300만 원에 대비하여 454억 9700만 원(2.55%)이 증액된 1조 8282억 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억 3357만 원이 삭감된 1조 8269억 543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보 의원의 5분 발언과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방사능 라돈 침대, 군산 소각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있었다.

환경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는 천연방사성폐기물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2022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17회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2022 군산자원봉사자대회'를 (사)군산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진)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우수자원봉사자 시상과 자원봉사 명예의전당 현액식이 함께 진행됐다. 올해의 우수자원봉사자는 1365포털 시스템상 최다 실적 봉사자인 김선우(봉사상), 박민희(나눔상), 김성희(배려상/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10년 이상 군산에 거주하며 봉사한 자 중 5,000시간 이상 꾸준한 봉사 활동에 헌신한 봉사자를 명예의전당 현액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명예의전당 현액대상자로는 이이순(육서여성의용소방대), 전해정(다담봉사단), 두점자(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씨가 선정됐다

자원봉사유공 수상자로는 군산시장

표창 개인부문에 김명숙(미성동통장단, 인영자(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임정래(천환경봉사단), 유희봉(귀반봉사단), 주미영(다미니봉사단), 하정래(다뜻다뜻봉사단), 함복덕(세노이봉사단)씨가 수상했다.

단체부문으로는 군장대학교엘니스봉사단이 표창의 영예를 안았으며, 군산시의회의장 표창에 고득용(안전모니터봉사단), 이옥선(홍25문화예술단)씨가 수상했다. 청소년부문으로는 봉예은(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이성호(군산한빛고등학교), 이하늘(군산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임준 시장과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관계자 350여명이 참석해 서로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해주는 훈훈한 자리였다. /군산=김판곤기자



황진 이사장은 "섬기고 나누는 봉사를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의 고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여성가족과장은 "한 해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사랑과 나눔으로 봉사를 실천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활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군산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군산시, 2023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8,800명이며 유형별 인원으로는 공익활동형 6,618명, 사회서비스형 1,871명, 시장형 130명, 취업알선형 190명이며 시 읍면동 및 총 10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에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평균 11개월 정도 활동한다. 기타유형별 보수와 활동기간은 사업유형별로 상이하다.

공익활동형 접수는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

형은 해당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단 생계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2개 이상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된다"며, "수행기관 현황과 세부내용은 시청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경로장애인과(☎454-3184)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통계 생성 관리 통한 정책 지원

군산시는 9일 오는 2023년부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제, 복지,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수요별 행정통계를 생성·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통계는 시와 호남지방통계청 간 지역통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의해 인구, 재산, 일자리, 연금, 건강 등 8개 분야 135개 정도 항목 생성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등의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간 조사통계의 조사항목의 한계 및 상당한 기간소요 등 정책수립 시

반영이 어려운 점을 보완한 통계자료로 수요에 맞는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을 필요에 맞춰 작성할 수 있어 정책수립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올해 2021년 기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전복 및 군산시 사회조사, 농림어업조사 1차시점 조사를 완료했으며, 12월 말에 조사 통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장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현장 관리

군산시는 지난 9일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4일부터 산물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산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 기준으로 9,509톤(배정량 64.7%) 매입을 완료했다.

군산의 2022년 총 배정 물량은 1만 5,113톤으로 작년 배정물량인 4,916톤에 대비해 207%로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증가한 물량을 기한 내에 전부 매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매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는 안전한 매입 완료를 위해 공공

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 시 현장 안전 수칙 게시물을 부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담당자에게 안전조끼와 경광봉을 지급하여 안전 담당자의 지시를 통해 지게차 및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1년 동안 농가들이 맘 풀리며 일궈온 수확물을 매입하는 데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농가들의 정성이 빛바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매입 현장 관계자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해주고 있어 감사드리고, 매입 완료까지 더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녹색 도시숲 우수도시로 '도약'

익산시가 정부로부터 녹색 도시숲 조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녹색정원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8일 산림청 주관 '2022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전라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인화공원'이 도시숲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녹색도시 우수사례 시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조성한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과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잘 발휘된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인화공원은 동익산역 주변 전라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과 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여 원을 들여 소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44종 12만3천여 그루를 식재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생태환경이 열악한 남부권 시민들에게 도심 공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보, 체험교실공모 선정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돼 육아센터 내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한다.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체결된 전국 작은 공부방을 대상으로 진행한 '건강보험 방과 후 체험 교실 사업' 공모에 선정돼 2백만원 상당의 체험활동 강사비 및 재료비 지원금을 확보했다.

공모 프로그램은 다양한 강사 인력풀과 검증된 요리 체험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을 겨냥한 맞춤형 '초등학교 저학년 요리 체험'이다

특히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 풍부한 돌봄 운영 노하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확보된 지원금은 겨울방학을 맞아 돌봄 사각 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오전 시간에 프로그램을 집중 개설해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